



햇님샘의 수특 DIGEST

Table of Contents

1강 • 05	11강 • 48	21강 • 116	31강 • 23	41강 • 70	51강 • 155
2강 • 12	12강 • 56	22강 • 116	32강 • 28	42강 • 80	52강 • 168
3강 • 16	13강 • 59	23강 • 116	33강 • 32	43강 • 90	
4강 • 19	14강 • 60	24강 • 123	34강 • 36	44강 • 116	
5강 • 23	15강 • 70	25강 • 155	35강 • 38	45강 • 116	
6강 • 28	16강 • 80	26강 • 168	36강 • 41	46강 • 116	
7강 • 32	17강 • 90	27강 • 05	37강 • 48	47강 • 116	
8강 • 36	18강 • 116	28강 • 12	38강 • 56	48강 • 116	
9강 • 38	19강 • 116	29강 • 16	39강 • 59	49강 • 116	
10강 • 41	20강 • 116	30강 • 19	40강 • 60	50강 • 123	



People overestimate their ability to understand why they are making certain decisions. They make up stories to explain their own actions, even when they have no clue about what is happening inside. After they've made a decision, they lie to themselves about why they made the decision and about whether it was the right one in the circumstances. Daniel Gilbert of Harvard argues that we have a psychological immune system that exaggerates information that confirms our good qualities and ignores information that casts doubt upon them. In one study, people who were told they had just performed poorly on an IQ test spent a lot more time reading newspaper articles on the shortcomings of IQ tests. People who had been given a glowing report from a supervisor developed an increased interest in reading reports about how smart and wise that supervisor was.



read in detail

- ① People overestimate their ability to understand why they are making certain decisions.

사람들은 왜 그들이 어떤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자신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 overestimate 필자의 주관노출: 결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결정의 이유를 알 능력이 없다

- ② They make up stories to explain their own actions, even when they have no clue about what is happening inside.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들을 꾸며낸다, 심지어 자신들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아무런 단서도 없을 때조차.

- ① making certain decisions → their own actions
- ① 자신들의 결정의 이유를 모름 → 그래서, make up stories
- ① why they are making certain decisions → what is happening inside

- ③ After they've made a decision, they lie to themselves about why they made the decision and about whether it was the right one in the circumstances.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린 후에, 그들은 왜 자신들이 그 결정을 내렸는지와 그것(그 결정)이 그 상황들 속에서 옳은 것이었는지에 대해 자신들에게 거짓말한다.

- ① + ② → 결국 lie 하게 됨.



voca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다

make up story

이야기를 꾸며낸다

clue 단서

circumstance 상황, 환경

immune 면역의

exaggerate 과장하다

confirm 확고히 하다

cast 던지다

supervisor 관리자, 감독관



build-up!

Harvard의 Daniel Gilbert
는 주장한다 / ~라고 /
우리가 / 가지고 있다 /
한 심리적인 면역체계를 /
관계사 / 과장하는 /
정보를 / 관계사 /
확고히 하는 /
우리의 좋은 점들을 /
그리고/ 무시하는 /
정보를 / 관계사 / 던지는 /
의심을 / 그것들 위에.

- ④ Daniel Gilbert of Harvard argues that we have a psychological immune system that exaggerates information that confirms our good qualities and ignores information that casts doubt upon them.

Havard의 D.G.는 우리가 우리의 좋은 성질들을 확고히 해주는 정보는 과장하고 그것들(그 좋은 성질들)에 대해 의심을 던지는 정보는 무시하는 심리적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 a psychological immune system: 신체적 면역체계는 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아프지 않게 지켜줌. 그렇다면 심리적 면역체계는 우리의 정신을 아프지 않게 지켜줄 것임. 즉, 맘에 드는 정보만을 더 크게 과장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편하기 위한 방식임.

- ③ lie → a psychological immune system/
exaggerates information/ ignores information ; 결국 거짓말은 긍정의 뉘앙스

- ⑤ In one study, people who were told they had just performed poorly on an IQ test spent a lot more time reading newspaper articles on the shortcomings of IQ tests.

한 연구에서, IQ 테스트에서 좋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들은 사람들은 IQ 테스트의 단점들에 관한 신문기사들을 읽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 ④ ignores information that casts doubt upon them → reading newspaper articles the shortcomings of IQ tests

- ⑥ People who had been given a glowing report from a supervisor developed an increased interest in reading reports about how smart and wise that supervisor was.

(IQ 테스트의) 감독관으로부터 빛나는 보고(잘했다는 소식)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 감독관이 얼마나 똑똑하고 현명한가에 대한 보고서들을 읽는데에 증가한 관심을 발전시켰다.

- ⑤ VS ⑥
- ⑤ exaggerates information that confirms our good qualities
→ reading reports about how smart and wise that supervisor was



summary

- ① 사람들은 사실 자신이 내린 결정의 이유를 잘 알지 못하며 오히려 결정을 내린 이후에 그것이 옳은 것이었다고 스스로에게 거짓말한다.
- ② 인간은 스스로의 좋은 점을 확고히 해주는_____ 정보는 과장하고_____
그것에 의문을 던지는_____ 정보는 무시하는 심리적 면역체계
_____를 가지고 있다
- ③ IQ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신문을 볼 때, IQ 테스트의 단점에 관한 기사를,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IQ 테스트의 장점에 관한 기사를 보는 것에 흥미를 가졌다.



further reading

After making a choice, the decision ultimately changes our estimated pleasure, enhancing the expected pleasure from the selected option and decreasing the expected pleasure from the rejected option. If we were not inclined to disregard the value of our options rapidly so that they concur with our choices, we would likely second-guess ourselves to the point of insanity. We would ask ourselves again and again whether we should have chosen Greece over Thailand, the toaster over the coffee maker, and Jenny over Michele. Consistently second-guessing ourselves would interfere with our daily functioning and promote a negative effect. We would feel anxious and confused, regretful and sad. Have we done the right thing? Should we change our mind? These thoughts would result in a permanent halt. We would find ourselves — literally — stuck, overcome by indecision and unable to move forward. On the other hand, reevaluating our alternatives after making a decision increases our commitment to the action taken and keeps us moving forward.

선택을 한 후에, 그 결정은 결국 우리가 추측하는 즐거움을 변화시키며, 그 선택한 선택사항으로부터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즐거움을 향상시키고 거부한 선택사항으로 부터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즐거움을 감소시킨다. 우리가 선택한 것과 일치하도록 옵션의 가치를 재빨리 새롭게 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뒤늦게 자신을 비판하여 미칠 지경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태국보다는 그리스를, 커피메이커보다는 토스터를, Michele보다는 Jenny를 선택해야 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자신에게 계속 되풀이하여 물어볼 것이다. 지속적으로 뒤늦게 자신을 비판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기능을 방해할 것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워 할 것이며, 후회하며 슬퍼할 것이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것일까?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은 영구적인 교착 상태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그야말로 움푹달짝 못하면서, 우유부단함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결정을 내린 후에 자신의 선택을 재평가하는 것은 그 취한 행동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증가시키며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 준다.

[2014 9평 36번]

F. Scott Fitzgerald thought that the test of first-rate intelligence was the ability to hold two opposed ideas in mind at the same time and still function. The eons shaped our brains in the opposite direction. Confirmation bias is a term for the way the mind systematically avoids confronting contradiction. It does this by overvaluing evidence that confirms what we already think or feel and undervaluing or simply disregarding evidence that refutes it. Testimony from members of the Crow tribe about the destruction of their culture provides an extreme and tragic example of this. A man named Plenty Coups reported that “when the buffalo went away, the hearts of my people fell to the ground and they could not lift them up again. After this nothing happened.” He was not alone in describing the depth of despair as the end of history. “Nothing happened after that,” another Crow warrior said. “We just lived.” The emotion was so strong that the brain rejected evidence of the continued existence of normal, everyday life that might have eased it.



F. Scott Fitzgerald는 최상의 지능에 대한 평가 기준은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을 동시에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서 계속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했다. 오랜 세월은 우리의 뇌를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맞추었다. 확증편향은 정신이 모순된 사실에 직면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회피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를 과대평가하고 그것에 반대되는 증거를 평가절하하거나 또는 단순히 무시함으로써 그러한 일을 수행한다. Crow부족의 구성원들의 그들 문화의 파멸에 대한 증언은 이에 대한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사례를 제시해준다. Plenty Coups라는 이름의 남자는 “들소가 사라졌을 때 부족 사람들은 몹시 낙담하게 되었고 활기를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라는 말을 전했다. 그 사람만이 그러한 깊은 절망감을 역사의 종말로 설명한 것은 아니었다. “그 이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살았어요.” 라고 또 다른 Crow부족의 전사가 말했다. 그 감정이 너무나 강렬하여 그것을 누그러뜨릴 수도 있었던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증거를 뇌가 거부해버렸다.

[2014 대수능 36]

When we behave irrationally, our behavior usually seems reasonable to us. When challenged, the mind says (to itself), “Why are these people giving me a hard time? I’m just doing what makes sense. Any reasonable person would see that!” In short, we naturally think that our thinking is fully justified. As far as we can tell, we are only doing what is right and proper and reasonable. Any fleeting thoughts suggesting that we might be at fault typically are by more powerful self-justifying thoughts: “I don’t mean any harm. I’m just! I’m fair! It’s the others who are wrong!”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is nature of the human mind as its natural state. In other words, humans don’t have to learn self-justifying, self-serving, self-deceptive thinking and behavior. These patterns are innate in every one of us.

우리가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때, 우리의 행동은 우리에게 주로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능력을 시험 받을 때, 마음은 (스스로에게) “왜 이 사람들이 나에게 힘든 시간을 주는 것인가? 나는 이치에 맞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누구든 이성적인 사람은 이것을 알 텐데!” 라고 말한다. 요컨대, 우리는 우리의 사고가 완전히 정당하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우리가 아는 한, 우리는 옳고 적절하고 합리적인 것을 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틀렸는지 모른다고 암시하는 어떠한 순간적인 생각도 일반적으로 더 강한 자기 합리적인 생각으로 극복된다. “나는 해를 끼칠 의도가 아니었어. 나는 정당해! 나는 공정해! 틀린 것은 다른 사람들이야.” 인간 마음의 이런 성향을 자연 상태라고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기 합리적이고, 자기 잇속을 차리며, 자기 기만적인 사고와 행동을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형태들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타고난 것이다.

[2013 9평 24번]